



오늘의 날씨 | 흐림 | 기온 -13℃/-8℃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음력 1월 13일)

기독일보

석간



구독신청 02-722-8165

제 990호

www.christiandaily.co.kr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지하게 인간·신·공동체 이야기 꺼내야”

한국실천신학회, 제67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한국실천신학회가 최근 부평 카리스호텔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실천신학의 과제”란 주제로 제67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조성돈 박사(실천신대 목회사회학)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회”란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조성돈 교수는 “기술의 진보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속도가 이제 가속화 되고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딥러닝 등으로 상징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명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제 그 속도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정도가 됐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런 변화가 이제 인간과 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간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었고, 많은 부분 사람의 수고를 이 기계들이 덜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편리함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계 내지는 기술들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여 이제 인간을 대체해내고 있다”면서 “이제 기술이 인간의 신체를 대체하는 장기들을 만들어 내고 인간의 마음까

지 저장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인류의 꿈인 ‘불멸’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더 나아가 그는 “기술이 이제 전지전능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인간을 초월하는 초지능의 시대에 이르면 사람들은 기술의 전지전능을 따라야 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그 초월의 존재는 기술을 넘어서 신의 위치까지 이르게 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런 배경에서 조 교수는 결국 ‘공동체’에 대한 질문에 이르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사람들이 극도로 개인주의화 됐고, 기술의 발전으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발전되어 항상 online되어 있는 인간들은 여러 사이버 공간과 공동체에 접속되어 있지만, 그런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곳에서 고독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실제적인 대면 관계에서는 철저한 소외를 경험하고 있기에 결국 ‘공동체’를 염원하게 될 것”이라 봤다.

그러나 조 교수는 “이들이 원하는 공동체는 개인주의화된 자신들의 영역을 침

범하지 않는, 그래서 공동체의 로망만을 이루어줄 수 있는 수준”이라 설명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와는 좀 거리가 있을 것”이라 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조 교수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들의 관심을 비판하는 것만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며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뭄이진, 그러나 깊은 고민에서 나온 무게를 짊어진 미래세대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안하지만 아직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진지하게 인간과 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조성돈 교수의 발표 외에도 “한국인의 마음과 영적 분별”(이주형), “제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 교육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김용기) “누구를 위한 기독교인가: 미군정기(1945-1948) 한경직 목사의 전도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김남식),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디아코니아의 역할”(이승철), “예전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 두뇌 연구 관점에서”(문화량), “과학혁명 시대와 복음의 소통 가능성: 유발 하라리의 종교전망에 관한 대응”(김선일),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상담과 심리치료”(여한구) “한국교회

초기 설교론에 관한 분석 평가”(이현웅) “기계와 친밀 관계 시대”(권명수) “인공지능과 예배의 초월성으로 자기 희생의 가능성 연구”(나인선)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설교학의 과제”(양동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영성: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영성”(윤성민) “한국 기독교사립중등학교 종교교사 및 교목의 정체성구성과 종교수업에 관한 탐색적 질적 연구” (유은희)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쇠퇴 패턴 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탐색적 질적 연구“ (박관희)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또 정기학술대회와 함께 열린 총회를 통해서도 신임 임원진이 구성됐다. 회장으로는 김경진 교수(장신대)가 선출됐으며, 선임 부회장으로는 김상백 교수(순신대), 부회장으로는 황병준 교수(호서대)와 민장배 교수(성결대), 총무로는 서승룡 교수(한신대), 편집위원장으로 한재동 교수(나사렛대) 등이 선임됐다.

2018년 정기학술대회는 오는 5월 19일 장신대와 9월 16일 필립포름, 10월 12~13일 소망수양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특별히 10월 70회 정기학술대회는 “응답하라 1919: 삼일정신과 교회의 미래”란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1년 후인 2019년 2월 15~16일 부평 카리스호텔에서는 “인구 절벽시대의 실천신학의 과제”란 주제로 정기학술대회와 정기총회가 열린다.

조은식 기자

‘손정도 목사 87주기 추모식’ 열려

사단법인 손정도기념사업회(대표회장 전용재 감독)가 지난 12일 오전 11시 송실대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에서 손정도 목사 87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대표회장 전용재 감독은 설교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손정도 목사의 희생과 섬김의 법칙을 따라가자”고 전했다.

황준성 송실대 총장은 “자랑스러운 송실대인 손정도 목사의 추모식이 송실대에서 열리게 돼 뜻깊다. 손 목사님은 교단의 선교자이자 애국지사로서, 지난 9월 송실대 제90회 학위수여식에서 명예졸업장을 드리게 되어 기뻐다”며 “기독교 민족대학으로 유일하게 신사참배에 맞서 자진 폐교한 송실의 역사는 손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동문들의 열과 혼으로 가능했다. 송실대는 통일시대,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으로 손 목사의 나라사랑과 고귀한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추모사를 전했다. 이어진 추모사로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 자리는 손정도 목사의 독립운동의 길과 민족사랑에 대해 되새기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손 목사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 대한민국 탄생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분열된 독립운동세력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고 유관순 열사 등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유족대표 인사를 통해 손 목사의 장손자인 손명원 박사는 “주인이 원하는 대

로 더러운 것을 깨끗이 치우고, 다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결례철학”이었다며 “손정도 목사가 원하는 것은 국민이 하나 되어 존경받는 국가가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손정도 목사(1882~1931)는 1910년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수료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냈으며, 대한적십자회를 창립한 독립운동가다. 의용단, 한국노병회, 흥사단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62년 건국공로 훈장을 받았다. 손 목사는 남과 북에서 모두 존경받는 독립운동가로 김일성 회고록 ‘제기와 더불어’에 따르면 손정도 목사를 ‘할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했다’고 기록했다.

조은식 기자

2월 12일은 “소년병 반대의 날”

어떤 아이도 어른들에 의해 전쟁터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전 세계가 목소리를 모으는 날이 2월 12일 ‘소년병 반대의 날’이다. 무력 분쟁에서의 아동 가담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의정서는 아동이 무력 분쟁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다른 대안이 없는 취약한 아이들이 소년병의 타겟이 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은 국제사회와 함께 소년병 반대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소년병 피해 아동을 위한 통합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월드비전 제공

통일부, 北고위급 대표단 후속 조치 “다양한 방안 검토 있을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귀환 다음날인 12일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 및 북한 최고지도자 직계 가족이 우리 측 지역을 방문했고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과 관련해 “향후 여건 조성 시에 남북 정상 간의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단초가 마련이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북한이 필요한 경우 전면 없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는 전날 통일부의 분석자료와 관련해 ‘과감한 조치에 비례하도록 포함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백 대변인은 또 전해성 통일부 차관이

13일과 14일 각각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남북 간의 현안,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 예술단 137명이 이날 오전 귀환한 이후 북측의 방남 체류 인원은 응원단 등 333명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11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관련 설명 자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필요한 경우 전면없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여건 조성시, 남북 정상 간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가능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또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을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등 탄력적 상호 견인 도모하며, 비핵화 과정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관계에서 본격적 진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서울평양뉴스

한교총, 평창 동계올림픽 위한 단기선교사 파송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한국교회봉사단을 파송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2월 10일 10시 평창강리교회당에서 단기선교사 파송식을 가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채플린 등 국내의 사역자 32명을 파송한 한교총은 “외국에서 전문사역을 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로 하여금 자국 선수단을 선교하도록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파송장을 받은 선교사들은 세계스포르츠선교회가 선발했으며, 한국 9명, 미국 6명, 캐나다 2명, 러시아 6명, 르완다 1명, 케냐 2명, 파키스탄 2명, 스위스 1명, 노르웨이 3명 등 32명이다.

파송식은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세직선)가 주관하는 직장선교 세계대회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세계선 총재 정근모 장로와 스포츠선교회 이광훈 목사, 일본 국사마리탄 이사장 카네코미치히토 목사 등과 본회에서는 변창배 총무가 참석했다.

한교총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봉사단을 조직해 파송하고 있으며, 실무는 사무총장으로 지학수 목사와 실무 국장으로 홍석민 목사가 수고하고 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평창과 강릉 정선에 각각 베이스캠프를 마련하고, 국내외의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통합

복을 선교 사업을 펴고 있다.

박용국 기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김노아 엄기호 목사 2파전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김노아 목사(기호 1번)와 직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기호 2번) 2파전으로 치뤄진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 이하 선거위)는 12일 오후 5시까지 후보 접수를 위한 발전기금을 받고자 했으나, 엄기호 목사는 기금을 납부했지만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는 납부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2명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전광훈 목사는 현재 대표회장 직무대행과 선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처분’ 소를 제기한 상태로, 이 사유로 기금을 납부하지 않고 후보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전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서류를 12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박용국 기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아모스 2장 9-16절)

옛말에 ‘삼희성(三喜聲)’ 즉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갓난아기의 우는 소리, 아낙네의 다듬이 방망이 소리, 글방 도령이 책 읽는 소리’인데, 이 세 가지 소리가 담 넘어 들리는 집은 유복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한 아이가 계속 태어나고, 주부가 집안일을 성실하게 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이라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삼희성’ 중에서 ‘다듬이 방망이 소리’는 요즘같이 집집마다 세탁기를 돌리는 시대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소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공한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한 후손들이 출생해야 하고 또한 그 후손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가 그들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느냐 아니냐, 그들의 “청년 중에서 나실인”이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나실인’이란 ‘성별된 자’라는 뜻으로서, 민수기 6장에서 명하고 있는 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부정한 것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 세 가지 서약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서약을 하고서 자신을 성별하는 것이 중요한 준비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런 ‘나실인’이 곧 ‘민족의 대를 이어갈 갓난아기’에 해당되었고, 그런 ‘선지자’가 바로 ‘선민의 정통성을 지켜 줄 글방 도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저는 왜 우리 경향교회에서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도 이와 같은 ‘나실인’과 ‘선지자’가 꼭 일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 ‘경건한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9절과 10절에 기록하기를 “9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10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죽 역사상 최대의 복이라고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 11절에서 “11도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훨씬 더 큰 복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영토의 복은 다른 민족들도 다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스라엘만 받았던 복, 이스라엘만 특별히 누릴 수 있었던 진짜 복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만 ‘선지자’와 ‘나실인’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입니다.

우리는 경향교회가 강서성전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라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만 판단한다면 마치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같이 전혀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IMF 시절에, 우리보다 먼저 성전건축을 시작했던 다른 더 큰 교회들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수백 억 대의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로 기적적으로 당시의 경복학원을 우리 손에 붙여 주셨고 이 ‘경향학원의 타’ 위에 강서성전을 끝내 완공하고 헌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이제는 바로 그 곁에 있는 ‘교육관’과 ‘선교관’까지, 정말 우리가 ‘받아서 쌓기 바쁠 정도로 넘치는’ 복을 연이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경향교회는 이런 ‘땅을 차지하게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경향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가 생기고, 우리 경향의 청년들 중에서 ‘나실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운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일찍이 원로목사님께서 ‘교회의 미래는 주일학교에 있다’고 하시면서 ‘현대사회입수륙’ 부보를 통해서 자녀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먼저 전도하면 부모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실로 기가 막히는 전도 전략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강서시대가 시작되던 때부터 ‘어린이 선교원’과 ‘채소식반’을 ‘전도의 못자리’를 만들어 놓고 ‘달린 아파트 문’의 열쇠를 바로 어린이들을 통해서 찾아내는 가운데 오늘까지 이처럼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일학교 학생이 모두 다 ‘중생’ 받는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시키게 해 주실 수 있는 소중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경향교회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현하보다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향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학생회’가 아니라 ‘SFC’ 즉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중고대학생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모임이 무슨 ‘학생친목회’나 ‘학생 봉사회’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개혁주의신앙’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익히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교회의 학생들은 문자 그대로 기독교 교육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통하여 ‘종교개혁자’와 ‘순교자’의 후예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른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춘기 시절에 이처럼 교회중심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 SFC 운동원들은 그야말로 경향교회의 ‘호랑이 새끼’들과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청년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들은 주일의 예배 참석을 비롯하여 온갖 봉사활동에 핵심멤버가 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바른 생활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금요밤 기도회에게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지만 그 교회를 젊은 남녀들의 사교장소 쯤으로 여기는 이 시대의 적지 않은 청년들과는 달리 우리 경향의 청년들은 이처럼 ‘신전인격자’의 신앙과 ‘신행일치’의 생활을 최우선으로 두는 가운데 실로 든든한 ‘교회의 동량’들로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경향교회에 이런 믿을 만한 청년들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길은 이런 ‘경건한 후손’이 끊이지 않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경향의 주일학교와 SFC와 청년회를 통해 이처럼 ‘성별된 나실인’들을 더욱 많이 양육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차세대 전도자’를 계속 배출해 내는 것이 곧 교회의 미래에 대한 최고의 보장입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12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잘못을 단도직입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나실 사람” 즉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나실인의 서약을 도중에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역시 선지자의 생명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나실인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타락시키

고 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실인과 선지자야말로 자기 민족의 미래가 걸린 핵심적 존재인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면 되었다고만 생각하고, 자기 아들들을 나실인으로 서원시키고 선지자로 키우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아니 그나마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이나 이미 선지자가 된 사람들조차 방해하고 낙심시켰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실인에게까지 포도주를 함께 마시도록 압박을 주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위협하면서 함구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풍토에서 어느 청년이 스스로 나실인 서약을 하였으며 어느 집 아들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지자가 되었다고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선지자들이 다 없어져 버려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방관했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의 차세대에서 이처럼 ‘예언하는 선지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곧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면서 망국의 길로 치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기록하기를 “13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흠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14빨리 달음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15활을 가진 자도 쉴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발기뻑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조 이스라엘을 주변 강대국들을 동원하여 마치 ‘곡식 단을 가득 실은 수레’의 바퀴가 ‘흠을’ 짓누르듯이 압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에서 내로라하며 살던 자들까지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달음박질하는” 달리기 선수 같은 사람은 물론이요 “말 타는 자”까지도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강한 자”나 “용사”나 “활을 가진 자”를 비롯하여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 즉 ‘최정예 용사’까지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그것을 막아낼 힘을 전혀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My KIDS

가족들 나야만 내가 진짜 나. 나의 모든 아이들 Facebook에 올리세요!

My Kids 50%

Facebook 100% 50%

가족들 나야만 내가 진짜 나. 나의 모든 아이들 Facebook에 올리세요!

My Kids 50%

Facebook 100% 50%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 앱 mykids.vv.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vv.or.kr

300원 후원금 받기

-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카드 발급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동과 연장을 후원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아동을 사는 자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 1회 아동의 발달 프로그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연차

- 월 300원의 후원금은 지역별사업소를 통해 아동의 연차, 보편, 교육, 의료 및 생활에 사용됩니다.
- 아동후원은 한 아이의 보고를 넣어 꿈을 이루고 한 아이의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이 모든 비참한 망국의 결과는 바로 앞의 12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나실인을 타락시키고’ ‘선지자의 예언을 막음’으로 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적국의 강력한 군대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청년들의 경건의 능력이 약해질 때부터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세대에서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미래에 치명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청년 세대에 ‘나실인’이 사라져 가는 것은 보통 염려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청년들조차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조차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자연스럽게 마시면 그러지 않아도 악성적인 술 문화에 찌든 이 사회에 도대체 누가 좀 맑은 정신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 깨끗한 상거래를 하겠습니까? 교회의 청년회 안에서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서조차 혼전 관계를 예사로 여긴다면, 초기 개척시대에는 철저한 청교도 신앙으로 가정과 사회를 지켰던 미국이 지금은 무슨 프리섹스의 천국처럼 되어 버리고 있는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고스란히 답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젊은이들조차 그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몸을 다 바쳐 충성할 줄 모르고 그저 무슨 극장 구경이나 가듯이 일주일에 한번 주일예배 한 시간만 겨우 다녀간다면, 한때 개혁주의 교회 운동으로 전

성기를 이루었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그저 관광명소로 전락해 버린 저 비참한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수십 년 안에, 아니 십 년도 채 못가서 그대로 벌어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자식은 절대로 목사를 시키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아버지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기처럼 고생시키기 싫다는 일명 때문입니다.

장로 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목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 장로가 평소 집에서 걸핏하면 목사 흉을 보고 갈보는 것을 익히 보면서 자랐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 자녀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극구 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무슨 집안의 망조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것처럼 자기 아들이 선지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집에 화를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몇 년이 지나도 신학생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교회가 실상은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아무도 목사가 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비극이며 가장 두려운 망국의 징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사라지는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경향교회와 ‘별들의 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선지자’로 키우기 위해 어릴 때부터 ‘영적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별들의 학교’ 역시 원로목사님께서 ‘앞으로 점점 더 신학교 입학생들이 줄어줄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판단과 함께 시작된 운동입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고, 신학교를 지원하는 교회들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장래의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전도사, 목사 사모’가 될 ‘별님’들을 일찍부터 서원을 시키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교회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경향교회 딱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이 ‘별들의 학교’와 ‘별들의 학교 후원회’ 덕분에 우리 교단의 고린전학교에 매년 입학생들이 계속 이어졌을 뿐 아니라 그 지원자들의 자질이 갈수록 더 높아져 왔습니다.

거기마다 그야말로 금상첨화처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제네바신대학원대학교의 미래 역시 이 ‘별들의 운동’ 덕분에 더욱 밝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로 경향의 ‘청년’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나실인’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데에 곧 이 경향교회의 존속이 달려 있습니다.

이 경향의 ‘아들’들 중에서 별님으로 서원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목사’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경향교회로서는 문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장래의 전도자들을 발굴하고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최고 엘리트로 키워나가는 이것이야말로 곧 경향교회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임을 깨닫고, 자신의 자녀들을 ‘별님’이 되도록 격려하고 ‘별들의 학교 후원회’와 ‘제네바신대원 후원회’와

‘경향선교회’를 통해 이 소중한 ‘선지자’들을 더욱 힘을 다해 후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싱가포르의 작고 역사도 극히 짧은 나라이지만 기적적인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게 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고민은 청년들의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계속 발전되고 사회조직은 점점 더 전문화되면서 복잡해지는데,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지금 싱가포르의 국제적으로 유학생들을 좋은 조건으로 많이 유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싱가포르에 영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가 과거 역사상 최강 제국이 되고 미국이 현재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공통적인 이유 역시 둘 다 ‘시민권’을 이용하여 다른 민족의 우수한 인재들을 자기 나라에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차세대를 이어갈 인재가 없으면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도 순식간에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 것입니다.

지적 인재도 그러할진대 영적인 인재가 없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년 세대가 경건의 능력을 잃으면 그 사회의 도덕, 양심, 상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성장, 국력신장,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은 그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경향교회는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

다. 강서성전을 지었고 교육관과 선교관을 구입했을 뿐 아니라, 경향선교회와 제네바신대원과 별들의 학교와 경향학원과 경향복지재단 등등 아주 잘 짜인 ‘영적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들을 채울 신앙의 차세대, 이 모든 하드웨어들을 활용하고 돌러나갈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한순간에 풀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에는 ‘선지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나실인’도 같이 있었습니

다.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바로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나실인이 곁에 함께 서서 완벽한 콤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나라는 복에 복을 더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교회에 있어서는 ‘나실인’이야말로 ‘대를 이을 갓난아기’이며 ‘선지자’가

곧 ‘가문을 일으킬 글방 도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향의 1세대에는 실로 훌륭한 ‘선지자’가 세워졌고 정말 신실한 ‘나실인’들이 나왔습니다.

원로목사님께서 당신의 목회사역의 최전성기를 온통 바치셨고, 초대 장로님들 역시 겨우 30세 전후의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애 최고와 전부를 다 바쳐 다 충성스럽게 섬겨 왔습니다.

이 경향교회와 남달리 큰 복이 넘치는 영적 초장이 되고, ‘세계를 받은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산성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향의 2세대 역시 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향의 아들’들이 더 많이 ‘별님’으로 서원을 하고 ‘제네바신학대학원’을 거쳐서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교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경향의 청년’들이 ‘경향교회 3대 후원회’의 회원과 임원이 되어야 하며 경향학원과 우성학원과 총회유지재단의 이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향의 후손들이 ‘경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신실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 곧 우리 경향교회와 누릴 더 큰 복과 영광스러운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청년들을 꼭 ‘성별된 나실인’으로 키우고 더 많은 우리의 아들들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 격려하며 힘을 다해 후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행 27:9-32)

(행 27:9-32, 개정) [9]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뱃속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뱃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3] 남풍



푸른교회 조성노 목사

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른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

했하였느니라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오직 배편이리라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 그 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7]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8]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제니 열다섯 길이라 [29] 앞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

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예루살렘에서 전적 체포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아시는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황제에게 직접 재판 받을 항소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지만 그곳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 당하던 중입니다. 바울이 왜 굳이 황제가 주재하는 로마대법정에 항소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로마 심장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가 주후 59년 겨울입니다. 당시 바울이 탄 배는 이집트 국적의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그 배는 유럽선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밀이나 보리를 수송하던 상선이었습니다. 죄수 호송관인 백부장이 그 배편을 이용해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직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 배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어떻게 생각했

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비참한 최후를 예상하며 측은하게 봤을 겁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지금의 크레타 섬의 미항(칼루스 리메나스)에 정박했을 때, 바울이 호송관인 백부장과 선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장 장세규	교계편집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독교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나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항해를 계속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나자고 합니다. 바닷길의 전문가인 선장이나 뱃사람들이 있는데, 그 배로 호송당하던 죄수가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탈출하려고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조 록 보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바울이 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했을까요? 바울의 영적 통찰력 때문입니다. 화물이나 배편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한 걸 보면 틀림 없이 주님의 계시가 있었을 겁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 미항에서도 분명 주님의 계시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도 어부 출신은 아니셨지만 때로는 어부들을 향해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거나 두 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했습니다. 대개 주님의 종이 권고를 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잠시 순항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크레타 섬 앞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초대형 태풍을 만난 겁니다. 유라굴로는 주로 겨울에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단어 뜻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18절 이하입니다. “18]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량이 그대로 있을 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때 바울이 다시 나섭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이며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로 이 대목에서 그 알렉산드리아호의 운명이 전적으로 바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다. 그 최후의 순간에 자유인들은 다 떨어져 절망하고 있는데, 그 배의 유일한 죄수인 바울 만큼은 홀로 담담합니다. 22절 이하입니다. “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모든 사람이 바울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배에서 가장 초라하고, 다 끝난 인생인 죄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역할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한 공동체의 운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무슨 발언권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바울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네게 다 주었다고 하십니다. 275명의 운명이 다 네 손에 달려 있다고 하십니다. 벤허가 노예가 되어 로마 군함 밀창에서 죽도록 노를 젓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격침 되고 맙니다. 벤허가 사령관 아리우스 제독을 날뻐지에 태웁니다. 아리우스는 몇 번이나 자결하려 하지만 벤허가 막습니다. 극적으로 그들은 아군을 만나 구출됩니다. 사령관이 묻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승리했다는 말을 들은 사령관이 벤허에게 물 한 바가지를 따주며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기 위해 우리 로마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구나!’라고 하며 끼고 있던 반지를 벤허에게 줍니다. 벤허는 아리우스의 양자가 됩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긍정하든 부정하든지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한, 이것은 운명적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이 비록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 바울을 보고서 그 배의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이제 바울이 처방을 내립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배를 떠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바울이 내린 구원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면 아예 거룻줄을 끊어 아무도 그 배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험하다 해도 배를 떠나면 안 됩니다.

배가 무엇입니까? 배는 언제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시대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극심하고 혹독한 환란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에도 불구하고, 절대 배에서 탈출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태풍 속에서 바울이 엄중하게 받은 하나님의 계시

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초비상입니다. 사람들이 배를 자꾸만 떠나려고 합니다. 멀미가 나더라도 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있지 않았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과 같습니다.

당시 노아의 방주는 그해 유일한 구원의 배였음에도 환경은 결코 쾌적하지 않았습니 다. 그 큰 배에 창이라고는 하늘로 난 창 하나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의 가족은 그 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배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수장 당했습니다. 우리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여러 날 여러 해 칠흠 같은 어둠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여망을 잃고 배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 시대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배 안의 사정이 좋지 않고, 오히려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그 배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도] 눈빛엔 삶의 의욕이



연요한 목사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굳세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비바람 찬이슬 다 맞아도 향기를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에 온전히 저의 몸과 마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기댈 곳이라곤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는 데 인생을 소비하지 말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주실 때 주께서는 축복하시고 나누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은약의 피다. 오늘 저에게도 주님의 몸과 약속의 피를 먹여주옵소서.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밀려오는 재앙을 어떻게 피합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고대 이스라엘이 유월절 해방의 날을 맞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은 이유를 깨닫습

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출12:13)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을 넘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죽음 넘어 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산 같은 외로움을 가졌더라도 저의 눈빛엔 삶의 의욕이 번뜩이게 하옵소서. 가슴에 아픈 일이 많아도 멎든 가슴 다독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욕망에 묶여 있는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마음이 불안한 저를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저에게 참된 어린양이십니다. 사랑을 베풀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와 마음에 충족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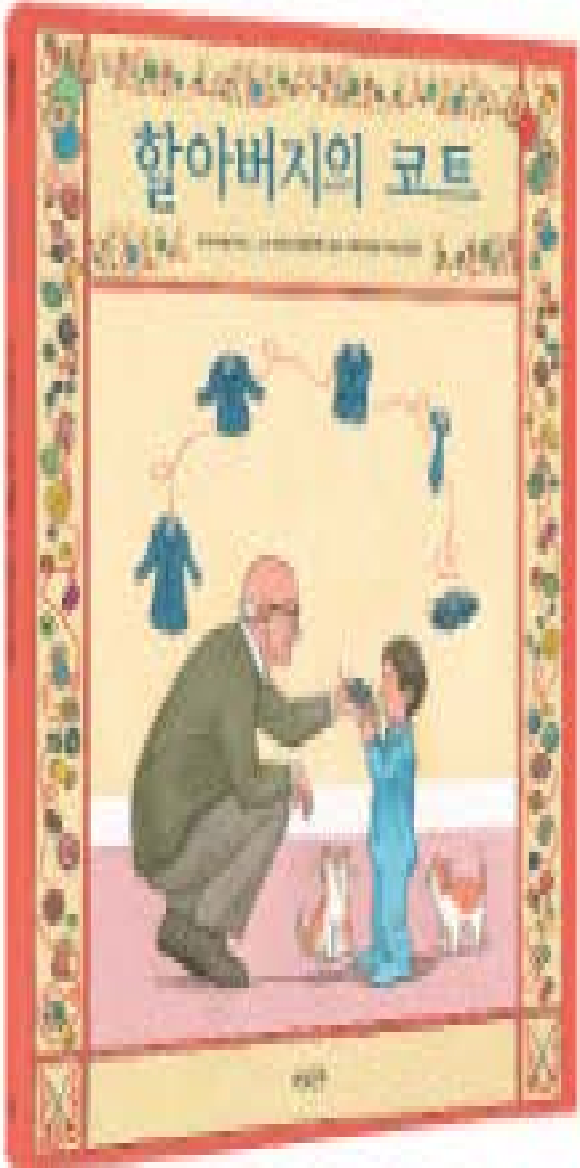
생명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연요한 목사는 숭실대, 숭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영시작 함께 읽는 철학동화-철학하는 아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할아버지의 코트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미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쳐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제,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이참고, 오래되고, 물품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아티스트 이묘재

한국아동서연구소 | 그림책연구개발팀 | (주)아이리브 | 02-734-7000

한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문의 02-734-7000 **이리브**